

2026. 01. 20 (화)

채권분석 Note - 국채 선물 저평가와 차익거래

환율 레벨 낮아져야 국채 환율 매수 및 국채 선물 저평가 해소 가능  
1500원대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시 매파적 기호가 두가 강화될 여지  
최소 1460 미만 하락 및 국가안정세 기대 형성 후 저가 매수 시점될 것  
→ 3년물, 국고 3년 3.1% 상회.

차이나 Note - 2025 중국 5% 성장

전년대비 2025년 중국 경제 5% 성장, 2년 연속 5% 유지.  
고정자산투자 (-3.8%), 산업생산 (+5.9%), 소매판매 (+3.7%)  
중국 → 기업구조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금융시장 활성화, 소비촉진 등.  
내수 활성화 수혜업종에 집중.

1. 25

이전에 분석에서 기업 펀데멘털 보다는 정치적 요소나 컨퍼런스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다보스 포럼을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자 영향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해 판단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수익을 거두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연설을 통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원전, 에너지, 방산 관련 섹터는 보진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문답에서 주는 이야기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단편적인 정보로 단기에 수익을 보려는 행위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또, 투자에서 미치는 사람의 감정이나 순간적 판단이 주는 위험성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적절한 분석과 사고·원칙을 통해 장기적으로 손실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2026. 01. 21 (수)

미국에 기업 유치, 투자 유치, 행사 및 이런 등.  
다보스 포럼 트럼프 대통령 연설 P.M 10:30 ~  
인플레이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 피력, 관세, 나토, 이민, 에너지, 그린란드에 대한 이해관계 언급하며 유럽과의 협상과 평화적 문제 해결에 대해 시사. AI, 에너지, 안보, 지정학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음. 동시에 바이든 정보와 파월에 대한 비판.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갈등 증인 상황과 관세 문제 등 정치적, 경제적 사안을 두고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라이브로 시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전체적인 면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다소 비판적인 면모를 많이 비쳤고 특정 인물과 사안에 대해 미국 중심의 환경을 위한 행동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했다. 그럼에도 안보와 에너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었고 바로 적용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